

익산시 경제 회복·관광 활성화 총력

공공·익산형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 창업 전국 최대 27억 투입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 지원 확충

익산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올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저 계층별 일자리 지원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고 익산형 일자리를 구체화해 능가 소득증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인

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27억5400만원을 투입해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최대 240만원),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업체당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첨단기술 중심의 신산업 발굴로 미래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한다.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XR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적화해 산업간 융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첨단기술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실감콘텐츠를 활용해 세계유산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야간경관을 더해 세계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또 올해 총 327억원을 투입해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복합건립 등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다채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계층별 지원과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등 취약계층 80여명 찾아가는 한방 진료 서비스

순창군이 올해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더욱이 올해는 독거노인과 거동불편환자 등 80여명의 대상자에게 매월 2회에 걸쳐 한의사와 함께 침이나 뜸, 파스 등 찾아가는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로당 중풍·골관절 사업은 물론 신체단련과 심신안정을 위한 기공체조교실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갱년기 및 청소년 건강교실 등 코로나19



순창군 어르신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기공체조를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로 지원된 군민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 박차

전담조직 구성 부서별 협력 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회의

남원시가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기구인 '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회의를 농업인상생활발전플랫폼에서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생활권 면단위 정책과제 설정의 의사결정을 위해 행정과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농촌중심지 6개소, 기초생활거점 6개소 등 12개 생활권위원장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성과 분석과 남원시 중장기적 사업인 농촌협약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방향을 심사·선정한 정부가 집중투자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 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공간정비계획 등 기본계획수립과 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해부터 농촌협약 전담조직을 구성해 계획수립을 위한 부서별 협력체계 구축 등 공모사업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현장목소리를 담아내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한 부서간 연계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해 농촌협약의 기초를 다져나갈 방침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비운의 항일운동가 백정기 의사를 아십니까

홍구공원 폭탄 투척 거사 실패 백남이 작가 '구파 백정기' 출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는 우리나라 항일독립운동사의 기념비적인 의거이지만, 그날의 거사는 윤봉길만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다.
상해 홍구공원 천장절 행사에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기로 했던 의사가 또 있었다. 정음 출신 구파(龜坡) 백정기(白貞基)이다.
백정기는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입장권 도착이 늦어지면서 정해진 시각에 홍구공원에 당도할 수 없었다. 결국 백정기의 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홍구공원 거사는 백범 김구의 '임정'과 이회영 백정기 등이 결성한 '남화한정연' 두 세력이 준비했다.
남화한정연 거사는 무위로 됐고, 그 결과 김구와 윤봉길은 역사에 남는 사건을 성공시켰다. 무위로 끝난 남화한정연과 구파 백정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역사가 됐다. 백정기는 1934년 6월, 39세에 옥사했다.
잊혀진 역사로 남겨진 백 의사를 다룬 다규 시집 '구파 백정기'가 출간됐다.
책을 쓴 백남이 시인은 구파와 한 집안 사람이



다. 백 의사는 시인에게 5촌 당숙이다.
백 작가는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백정기 의사의 자료를 접했다. 이후 작가는 자손으로서 크나 큰 책무감을 안고 살았다.
백남이다규시집이라는 별칭을 달고 있는 이 시집은 한 많은 일제강점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아나키스트로서의 순수성과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불살랐던 백 의사의 삶을 온전히 그려냈다.
백 작가는 "제한적인 자료들로 백 의사의 생애를 윤곽케 복원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후손으로서 잊혀지고 묻혀진 항일투사를 발굴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응골찬 삶을 살아가는 의사의 생애 감복하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시집 '사랑은 없다, 기다리기로 하자' 등을 낸 백남이 작가는 제주도에 살고 있으며 한국작가회의와 민족문학연구회 회원이며 '평화의 길' 제주지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위탁계약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와 2022년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번 위탁계약은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비 9억원을 확보해 연지동 KT정읍지사-수성동 정읍세무서 일원, 장명동 정읍여중-상동 정읍시 보건화관 일원, 금봉동 금북마을-행정마을 일원 3980필지 1604㎡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정보공사는 지적기준점 설치와 지구계 측량을 완료하고 전북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



유진섭(왼쪽) 정읍시장과 박명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군산시가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총 3650대)하는 경우 1대당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가정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저소득층으로 신청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기후환경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합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